

2022. 4월 4주 언론보도 스크랩

[산불대응] 양구산불 인명·재산피해 없이 완벽방어

매일경제

2022년 04월 11일
(사회)

양구 산불 민가 턱밑까지 위협...밤샘 진화와 갈퀴질로 방어

강원소방, 주택 70채·사찰 피해 막아...산림청 대원들도 사투

산불 야간 진화하는 소방대원들

강원 양구에서 난 대형산불이 밤새 민가와 사찰 턱밑까지 번졌으나 소방당국이 방어에 성공했다.

11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0분께 양구읍 송청리에서 난 산불은 바람을 타고 상리, 황강리 등으로 빠르게 번졌다.

이에 강원소방은 인력 914명과 장비 84대를 투입해 산불 현장을 4개 구역으로 나누어 민가 보호를 최우선으로 연소 확대 방지에 주력했다.

전날 밤 11시께 황강리 황강마을과 청리 전원마을 인근까지 불길이 드리웠으나 관계 기관과 함께 주택 70여 채를 방어했다.

이날 오전 1시께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25호를 보유한 양구읍 송청리 심곡사 근처까지 불길이 확산했으나 소방대원들 덕에 피해는 없었다.

비슷한 시각 양구읍 상리 봉안사에서 불과 30m 떨어진 곳까지 불이 번졌으나 소방대원들이 인근 지역에 미리 불을 뿌리고 산불을 진화하면서 피해를 막았다.

산불 최전선에서 싸우는 산림청 진화대원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중진화대원들도 밤새 화마(火魔)와 사투를 벌였다.

산불특수진화대와 함께 산불 진화의 최정예 요원들로 이뤄진 공중진화대는 불갈퀴를 이용해 '불쏘시개'가 될만한 낙엽이나 부산물을 긁어내며 방화선을 구축했다.

산림 당국은 이날 날이 밝자마자 헬기 27대와 인력 1천30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중이다.

현재까지 축구장 크기(0.714ha)의 약 730배에 이르는 산림 521ha(521만㎡)가 탄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산불대응] 양구산불 인명·재산피해 없이 완벽방어

민가 위협한 양구 산불...밤샘 사투 끝 마을·사찰 지켜낸 강원소방



진화작업 펼치는 소방대원(강원도소방본부 제공)© 뉴스1

강원 양구 대형산불이 41시간 지속되며 한때 민가와 사찰까지 위협했으나 소방당국이 화마와 사투를 벌인 끝에 마을과 사찰을 지켜냈다.

12일 강원도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 40분쯤 양구읍 송청리에서 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상리, 황강리 등으로 빠르게 확산했다.

이후 오후 11시쯤 확산된 산불이 마을 인근까지 번졌으나 소방차량 14대와 소방대원 50여명을 긴급 투입해 밤샘 산불진압 활동을 펼쳐 황강마을 주택 40여채와 전원마을 주택 30여채 방어에 성공했다.

11일 오전 1~2시쯤에는 양구읍 심곡사(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25호 보유)와 봉안사 인접 30m까지 산불이 번졌으나 소방차량 5대와 소방대원 15명을 배치해 사찰로 산불이 번지지 않도록 적극 방어했다.



10일 오후 강원 양구군 양구읍 송청리에서 산불이 발생, 소방대원들이 이간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뉴스1DB)

이번 산불은 41시간 지속되며 720ha(추정)의 산림 소실됐으나 인명·민가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한 소방당국의 적극적인 산불진압 작전으로 인해 인명·민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양구 산불은 12일 오전 9시쯤 주불이 진화됐으며 이후 잔불 진화 체제로 전환됐다.

양구주민 "산불 진화 모습에 감동...감사함에 눈물 왈칵"

강원소방 누리집 통해 감사 인사...인명·시설피해 '제로'



산불 야간 진화하는 소방대원들

(양구=연합뉴스) 지난 10일 오후 강원 양구군 양구읍 송정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밤까지 이어지면서 소방대원들이 진화하고 있다. 2022.4.11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onanys@yna.co.kr

(양구=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산불이 속절없이 계속 확산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채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에 나타난 소방헬기가 얼마나 반가웠던지요. (중략) 쉽게 꺼지지 않는 산불이 원망스럽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에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양구군청 개청 이래 가장 큰 산불로 기록될 대형산불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주민이 진화대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양구 주민이라고 밝힌 한 주민은 12일 강원도소방본부 누리집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감사 글을 올렸다.

이 주민은 지난 10일 오후 바람을 타고 확산하는 산불을 보며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에서 나타난 소방헬기에 고마움을 표하며, 심 없이 물을 뿌리는 데도 불이 꺼지지 않자 원망과 죄송함과 감사함에 눈물을 쏟았다고 밝혔다.

그는 "한 사람의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정말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화가 났지만, 모두 수습하려고 애쓰는 모습에 감동받았다"며 "다른 사람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안전이 먼저입니다"라고 끝을 맺었다.



사찰 주변까지 번진 산불

(양구=연합뉴스) 지난 10일 오후 강원 양구군 양구읍 송청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범까지 이어지면서 봉안사 주변까지 불길에 번지고 있다. 2022.4.11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onans@yna.co.kr



강원소방은 산불 진화를 위해 사흘간 총 800여 명과 장비 140여 대를 투입했다.

산불 현장을 중심으로 한쪽에는 시내가, 다른 한쪽에는 소규모 마을들이, 또 다른 편에는 군사시설이 있어 자칫하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강원소방은 산불 현장을 4개 구역으로 나누어 민가 보호를 최우선으로 연소 확대 방지에 주력, 단 한 건의 인명·시설 피해 없이 방화에 성공했다.

양구소방서 소속 소방관은 비번임에도 친구가 사는 마을을 찾아 산불 확산을 막고 주민대피를 도왔다.

윤상기 도소방본부장은 "산불 발생 시 소방력을 총동원해 민가 및 인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께서는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산불대응] 양구산불 인명·재산피해 없이 완벽방어

마을 코앞 '시뻔건 산불'...주민들 뚝뚝 뭉쳐 막아냈다



[앵커]

강원도 양구의 산불은 축구장 면적 1천개가 넘는 산림을 태웠습니다. 하지만 민가가 모여 있는 마을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뚝뚝 뭉쳐 막아냈기 때문입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전원주택 30가구 정도가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마을 뒤가 산과 맞닿아 있습니다.

양구 산불이 시작된 곳에서 직선으로 3km 거리입니다.

불길은 강한 바람을 타고 이 마을로 향했습니다.

대피령이 떨어졌지만, 노인과 부녀자를 뺀 나머지 주민은 5명씩 조를 짰습니다.

마을 소화전으로 미리 물을 뿌렸습니다.

[황우남/강원 양구군 청우리 : '어느 팀은 어느 집까지 방어하자' 이것을 사전에 저희는 낮에 4~5시경부터 짰어요.]

밤이 되자 마을 뒷산으로 불이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적셔놓은 산기슭에서 불길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소방대도 민가 주위에 방어선을 치고 필사적으로 불을 꺾었습니다.

[임태구/강원 양구군 청우리 이장 : 외지에서 온 소방차들이 아니면 우리 주민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을 못 했을 거예요.]

양구 산불은 발생 41시간 만인 오늘 오전 9시 주불이 잡혔습니다.

산불로 피해를 본 곳은 8개 마을, 축구장 1000개가 넘는 면적입니다.

[신수길/강원 양구군 송청리 (양구에 64년째 거주) : 큰불이 이렇게 난 것이 없었어요. 우리도 이것은 전혀 이렇게 나리라고는 생각은 못 했는데...]

인명과 재산 피해는 없었습니다.

[최병암/산림청장 : 산불 진화에 물심양면으로 성원해주시고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 군위 산불도 발생 사흘째인 오늘(12일)에야 주불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주불을 끄는데 양구보다 8시간 더 걸렸습니다.

바람이 강하고 골짜기가 깊어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헬기로 물을 뿌려도 두꺼운 낙엽층 아래 불씨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해발 560m 각시산 옥녀봉을 중심으로 3개 마을 347ha가 산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산림당국은 양구와 군위 모두 피해 면적이 넓어서 숨은 불씨를 완전히 없애는데 많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봤습니다.

양구의 경우 오늘 밤부터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하지만 비의 양이 많지 않아 건조한 날씨와 화재 위험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산불대응] 양구산불 인명·재산피해 없이 완벽방어

초기진화·피해예방에 비상소화장치 효과...양구 산불서도 제구실



비상소화장치 가리키는 임태구 이장

(양구=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수도꼭지는 산불 나면 소용없어요. 여기(비상소화장치)에 소방호스를 연결, 마을로 넘어오는 불길에 물줄기를 쏘죠. 호스 하나에 장정 다섯 명이 달려들 정도로 수압이 강했는데 덕분에 마을을 지켰습니다."

강원 양구군 대형산불 발생 사흘 만에 주불이 잡힌 12일 오전 국토정중앙면 청우리 전원마을에서 만난 이장 임태구(73) 씨는 마을회관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가리키며 산불 당시 상황을 말했다.

지난 10일 오후 마을 인근으로 산불이 번지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임 이장과 주민들은 먼저 어르신과 여성, 어린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불길은 초속 10m가 넘는 강풍을 타고 마을 뒷산까지 다다랐다.

능선을 따라 긴 띠를 형성한 불은 금세 마을을 삼킬 듯 강풍을 타고 거세게 몰아쳤다.

다행히 마을에는 비상소화장치가 곳곳에 있었다.

이장과 주민들은 소화전에 소방호스를 이어 주택 등 건물에 먼저 물을 뿌린 뒤 불길이 넘실대는 산을 향해 물줄기를 쏘다. 마침 도착한 소방차도 힘을 보탤다.

주민 허성진(42) 씨는 "주민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필사적으로 물을 뿌리고 소방대원들도 함께 고생한 덕분에 마을로 불이 넘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며 "해가 지기도 전에 진화를 시작했는데 정신을 차리니 자정이 넘었다"고 말했다.

임 이장은 "2016년에 마을 인근에 큰 산불 난 뒤로 주민들과 가끔 비상소화장치를 이용해 진화 연습을 해본 것이 큰 도움이 됐다"며 "10년 전 설치한 소화장치 덕분에 산불로부터 마을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청우리에는 마을회관을 비롯해 곳곳에 비상소화장치 5개가 설치돼 있다.

여기에는 비상시에 주민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전과 소방호스가 갖춰져있다. 이는 지난달 동해안 산불에서도 제구실을 톡톡히 했다.

지난달 5일 강릉 옥계에서 시작한 산불은 동해시 부곡동 일명 승지골 일대를 휩쓸고 지나갔다.

하지만 승지골은 매서웠던 산불 규모와 비교해 재산 피해가 적었다.

주민들은 비상소화장치가 산불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 주민은 "산불이 난 앞산을 보고 있는데 불이 춤을 추듯 빠르게 옮겨붙어 집을 보호하기 위해 2시간 정도 호스로 물을 뿌리느라 정신이 없었다"며 "비상소화장치가 집 가까운 곳에 있어 주변은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19년 4월 강원 대형산불 당시 고성 홍와솔 마을에서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비상소화장치로 확산을 막아 피해를 줄인 사례가 있다.

이에 소방청은 사업비 70억 원을 들여 산불 초기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강릉·동해·속초·삼척·고성·양양 지역의 산림 인접 마을에 비상소화장치 700여 개를 설치했고, 2025년까지 전 지역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또 인근 지역주민과 이장 등을 관리자로 지정하고 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소방서 주관으로 교육·훈련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3시 40분께 발생한 양구 대현 산불은 송청리, 죽곡리, 황간리, 송우리, 청리, 용하리, 야촌리, 가오작리 등 8개 마을로 번져 산림 총 720ha(720만㎡)를 태운 뒤 이날 오전 9시 주불이 잡혔다.

산림 당국은 현장에 헬기 12대와 야간 열화상 드론 3대를 대기시키고, 산불전문진화대원과 감시원 등을 배치해 잔불 진화와 뒷불감시를 이어가고 있다.

[소방정책] 강원도소방공무원 노사협의회

강원도민일보

2022년 04월 13일
27면 (인물)



도소방본부 노사협의회 개최 강원도소방본부는 12일 도청 전략상황실에서 윤상기강원소방본부장, 고진모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강원본부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협의회를 개최했다.

(7.5*5.4)cm

江原日報

2022년 04월 13일
(정치)

[포토뉴스]소방공무원 노사협의회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윤상기)는 12일 도청 신관 3층 전략상황실에서 도내 소방공무원의 복지 함양 등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노사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윤상기 본부장, 고진모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강원본부 위원장, 권영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소방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권순찬(sckwon@kwnews.co.kr)

동해안 산불 성금 잇따라...양구 산불도 위문품 답지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는 오늘(12일)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에 써달라며 성금 1억 2천만 원을 강원도에 전달했습니다.

세계한민족여성재단에서도 동해안 산불 성금 1,160만 원을 기탁했고, 전국 소상공인연합회도 2천만 원을 기부하는 등 사회·경제단체에서 성금이 잇따랐습니다.

이달 10일 산불이 난 양구군에도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해 전국의 업체와 시민 등이 도시락과 생수, 음료 등 수천 개의 위문품을 전해 왔습니다.

박상용 miso@kbs.co.kr

[소방정책]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산불피해 성금전달

江原日報

2022년 04월 13일
(종합)

[포토뉴스]전국의소대연합회 산불이재민 지원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김미경)는 12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성금 1억2,000만원을 전달했다.

강원도민일보

2022년 04월 12일
(종합)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산불 피해 지원금 전달

정승환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김미경)는 12일 도청통상상담실에서 최문순 도지사에게 동해안 산불피해지역 주민을 돕기 위한 성금 1억2000만 원을 전달했다.



▲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김미경)는 12일 도청통상상담실에서 최문순 도지사에게 동해안 산불피해지역 주민을 돕기 위한 성금 1억2000만 원을 전달했다.

jeong28@kado.net

[소방정책] 강원소방·양대 노조 한자리서 맞손

'소방관 권익 향상 위해'...강원소방·양대 노조 한자리서 맞손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소방본부와 양대 노조가 소방공무원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13일 강원소방에 따르면 전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노조와 노사협의회를 했다.

양대 노조가 한자리에 모여 사측인 소방본부와 협의회 자리를 가진 건 전국 첫 사례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구조·구급대원 근무 방법 개선, 유연근무제 운용 활성화 및 당직 휴무 지정일 개선, 부부 소방공무원의 자녀 양육을 배려한 인사 배치 등 20개 안건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소방본부는 20건 중 13건은 개선하기로 하고, 현행법상 시행이 어려운 3건은 노조에 이해를 구했으며,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한 4건은 소방청에 건의하기로 했다.

권영각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소방지부장은 "소방공무원 권익 향상이 소방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므로 하위직 소방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수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강원본부 수석부위원장은 "말하기 어려운 직원들의 고충에 더 귀 기울이고 노조원들을 대표해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강원소방에서는 지난해 9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노조가 발족했다.

윤상기 도소방본부장은 "이번 노사협의회가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로 발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방정책] 어린이날 대비 어린이 시설 안전점검

KBS 춘천

2022년 04월 12일
(강원)

강원소방, 어린이 놀이시설 87곳 안전점검



강원도소방본부가 이달(4월) 28일까지 강원도 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키즈카페와 어린이 캠핑장 등 놀이시설 87곳입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화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화재 대비 공간 확보 여부입니다.

또, 추락방지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 놀이기구 자체의 안전성도 점검합니다.

김태희

[소방정책]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특별단속

강원소방,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특별단속...10건 적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의심대상 불시단속(강원도소방본부제공) © 뉴스1

강원도소방본부는 대형재난사고 사전 방지를 위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의심 대상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2개반 6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은 지난 7~8일 이틀간 물류창고, 공장 등 12곳을 불시 점검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지정수량 이상의 저장·취급위반 2건, 소량위험물 저장·취급 조례 위반 3건, 무허가 위험물 제거 및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5건이 적발돼 입건·과태료·조치 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용석진 예방안전과장은 "위험물 사고는 대형재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책홍보] 채용시험관련 포토뉴스

江原日報

2022년 04월 11일
02면 (종합)



소방관의 꿈 도전한 청년들 강원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이 지난 9일 남춘천중과 남춘천여중에서 치러졌다. 사진은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

신세희기자

(17.6*10.3)cm

[산불대응] 양구산불 관련 언론대응



정지 ▶ ||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10일 오후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송청리에서 산불이 발생,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강원도소방본부 제공) 2022.4.11/뉴스1 leejj@news1.kr

늦은 밤 계속된 양구 송청리 산불

2022/04/11 06:47 🔔



정지 ▶ ||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10일 오후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송청리에서 산불이 발생,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강원도소방본부 제공) 2022.4.11/뉴스1 leejj@news1.kr

[산불대응] 양구산불 관련 언론대응



포토홈

산불 야간 진화하는 소방대원들



포토홈

산불 야간 진화하는 소방대원들

[산불대응] 양구산불 관련 언론대응



포토홈

산불 야간 진화하는 소방대원들



포토홈

산불 야간 진화하는 소방대원들

[산불대응] 양구산불 관련 언론대응



포토홈

사찰을 지켜라



포토홈

사찰 주변까지 번진 산불

[산불대응] 양구산불 관련 언론대응



포토음

양구 사북 이특재 지하



[양구=뉴스시스] 김경목 기자 = 11일 오전 강원도소방본부 소방차량 4대가 밤샘 산불이 이어진 강원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농업기술센터 앞에서 출동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2022.04.11.

[산불대응] 양구산불 관련 언론대응

산불대응 현장지휘하는 윤상기 강원도소방본부장

2022/04/11 14:51 송고



정지 ▶ ◀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윤상기 강원도소방본부장이 강원 양구 대형산불 발생 이틀째인 11일 양구농업기술센터에 마련된 현장지휘소에서 산불대응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2022.4.11/뉴스1 leeji@news1.kr

산불대응 현장지휘하는 윤상기 강원도소방본부장

2022/04/11 14:51 송고



정지 ▶ ◀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윤상기 강원도소방본부장이 강원 양구 대형산불 발생 이틀째인 11일 양구농업기술센터에 마련된 현장지휘소에서 산불대응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2022.4.11/뉴스1 leeji@news1.kr

[산불대응] 양구산불 관련 언론대응

강원도민일보

2022년 04월 11일
(종합)

윤상기 강원도소방본부장 양구 산불현장지휘

신재훈

윤상기 강원도소방본부장이 양구 대형산불 발생 이틀째인 11일 양구농업기술센터에 마련된 현장지휘소에서 산불대응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윤상기 강원도소방본부장이 양구 대형산불 발생 이틀째인 11일 양구농업기술센터에 마련된 현장지휘소에서 산불대응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ericjh@kado.net



포도흙

요긴하게 쓰이는 비상소화장치

고된 산불 진화, '짧은 휴식'

2022/04/11 11:37 ★고



정지 ▶ ▶ ▶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양구 산불 이틀째인 11일 산불 현장에서 진화작전을 끝지던 소방대원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강원도소방본부 제공) 2022.4.11/뉴스1 leejj@news1.kr

[산불대응] 양구산불 관련 언론대응

고된 산불 진화, '짧은 휴식'

2022/04/11 11:37 송고



원시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양구 산불 이틀째인 11일 산불 현장에서 진화작전을 펼치던 소방대원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강원도소방본부 제공) 2022.4.11/뉴스1 leejj@news1.kr

[산불대응] 양구산불 관련 언론대응



포토홈

양구 산불 이틀째 진화



포토홈

산불 피해 위기 넘긴 사찰

[산불대응] 양구산불 관련 언론대응

양구산불 확산 저지 심야의 사투...마을 주택 70여채·사찰 방어

[양구=뉴스핌] 변병호 기자 = 산불 발생 이틀째인 양구 산불이 송정리 등 인근마을과 사찰 등으로 번지는 것을소방대원과 주민들이 방어에 성공했다.



1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1시쯤 확산된 산불이 양구군 황강마을과 청리전원마을 인근까지 확대 됐다.

소방당국은 산불 확산에 따라 소방차량 14대와 소방대원 50여명을 투입해 황강마을 주택 40여채와 전원마을 주택 30여채를 방어하는데 성공했다.

이어 이날 오전 1시쯤에는 강원도 유형문화재인 심곡사 인접까지 산불이 번졌으나 소방차량 5대와 소방대원 15명을 투입해 방어선을 구축해 사찰을 산불로부터 지켜냈다.

또 이날 오전 2시쯤 양구군 양구읍 봉안사 인근 30m까지 산불이 번졌으나 소방대원들이 산불저지에 총력 대응하면서 산불 확산을 막아냈다.

황인용 양구소방서 소방장은 비번임에도 친구가 거주하는 전원마을 찾아와서 마을주민들과 함께 소화전 5개를 활용해 산불확산저지와 주민대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산불 확산에 따라 소방차량 14대와 소방대원 50여명을 투입해 황강마을 주택 40여채와 전원마을 주택 30여채를 방어하는데 성공했다.

이어 이날 오전 1시쯤에는 강원도 유형문화재인 심곡사 인접까지 산불이 번졌으나 소방차량 5대와 소방대원 15명을 투입해 방어선을 구축해 사찰을 산불로부터 지켜냈다.

또 이날 오전 2시쯤 양구군 양구읍 봉안사 인근 30m까지 산불이 번졌으나 소방대원들이 산불저지에 총력 대응하면서 산불 확산을 막아냈다.

황인용 양구소방서 소방장은 비번임에도 친구가 거주하는 전원마을 찾아와서 마을주민들과 함께 소화전 5개를 활용해 산불확산저지와 주민대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민일보

2022년 04월 12일
22면 (인물)

양구 청우리 주민들 소화전으로 산불 방어 '고군분투'

휴일날 달려온 황 소방장 지휘
소방호스 연결해 불길 진압
노약자 대피 등 대형피해 막아

양구에서 발생한 산불로 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 마을주민들과 이를 도운 소방관이 있어 화제다.



황인웅 소방장

11일 오전 10시쯤 방문한 청우리 전원마을은

간밤에 마을 코앞까지 들이닥친 화재의 여파를 물로 씻어내기 바빴다. 산에서 날아온 재와 그을음을 없애기 위해



최근 양구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시설을 마을 주민이 호스로 씻고 있다.

가정용 호스로 설새없이 집 주변에 물을 뿌렸다. 이곳은 지난 10일 오후 7시 쯤부터 전기가 차단, 대형 피해가 발생

할 뻔했지만 양구소방서 황인웅(40) 소방장과 주민들이 한 마음이 돼 마을을 지켜냈다.

지난 10일 오후, 청우리 전원마을에 거주하는 이장 임태구(74)씨는 산불이 주택까지 번질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 소식을 들은 임씨는 "다 죽었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임이장을 포함한 전원마을 주민들은 마을에 있는 소화전으로 사전급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노약자들과 여성들은 대피시키고 남은 주민들은 소화전에 소방호스를 연결하는 등 불길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도록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부터 이날 오전 1시까지 비상급수를 실시했다.

황소방장은 양구의 산불소식을 듣고 산과 인접한 마을인 전원마을의 친구를 찾아 당장 비상급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약자들을 대피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평범한 시민들은 소화전 사용법도 쉽지 않았다. 그는 인근에서 소방호스를 빌려와 마을 전체를 잇는 물길을 만들었다. 또 마을 방송을 통해 가스를 차단하고 인화물질을 제거했다.

임태구 이장은 "그분이 없었으면 우리 집, 사람 다 죽었다"며 "소방관님의 기적 덕분에 모두가 살았다"고 했다.

황인웅 소방장은 "친구도 있고 마을이 걱정돼 쉬는 날에 달려왔는데 주민들이 안전해 다행이다"고 말했다.

신재훈 ericjh@kado.net
(22.9*10.2)cm

[산불대응] 양구산불 관련 언론보도(소화전 관련)

산불에도 양구 청우리 전원마을 31가구는 모두 무사했다...소화전 5개 덕분에



“소화전 5개를 이용해 마을 전체를 살렸어요. 주민들이 힘을 합쳐 소방 호스를 잡고 8~9시간 동안 마을과 접해 있는 산기슭에 물을 뿌린 끝에 겨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1일 오전 강원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청우리 전원마을. 전날 마을 뒷산까지 덮친 불길에 일부 주택의 뒷마당 인근까지 다가온 흔적이 역력했다. 이 마을 이장인 임태구씨(74)는 주택단지 앞에 설치돼 있는 소화전을 가리키며 전날 급박했던 상황을 이같이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 10일 오후 코로나 후유증이 심해 집에서 쉬고 있던 중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밖으로 나와 보니 불길에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지고 있었다”며 “금새 마을을 덮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먼저 노약자와 여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을 전체가 불길에 휩싸일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마침 이곳까지 달려온 양구 소방서 해안119지역대 소속 황인용 소방장과 소방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던 이 마을 반장인 황우남씨가 재산피해를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귀띔했다.

산불이 발생한 지난 10일 휴무였던 황 소방장(40)은 청우리에 거주하는 친구로부터 마을이 위험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다. 황 소방장은 먼저 이장 임씨에게 마을방송을 통해 각 주택의 가스기기를 모두 차단하도록 한 후 인근에 설치된 소화전과 호스 등 소방관련 시설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는 양구소방서에서 소방호스 13개와 관창(노즐) 2개를 가져와 마을에 설치돼 있던 소화전 5개에 연결했다. 이후 주민들과 함께 주택과 창고 등에 미리 물을 흠뻑 뿌렸다. 마을과 인접한 산기슭에서 주택으로 불이 옮겨 붙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요양원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 중인 황우남 반장(67)도 발빠르게 움직이며 진화작업을 이끌었다. 황 반장은 "지난 10일 오후 4시30분쯤부터 11일 새벽 1시까지 산기슭에 물을 뿌린 끝에 마을을 지켜낼 수 있었다"면서 "5년 전 마을 인근까지 산불이 번진 것을 계기로 가끔 주민들과 함께 소화전을 이용한 자체 진화훈련을 해 온 것이 이번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31가구 90여명이 거주 중인 청우리 전원마을에 소화전이 설치된 것은 2011년이다. 임씨는 "전원마을 조성 당시부터 설치해 놓은 소화전이 이처럼 긴급하게 쓰일지 몰랐다"며 "초기 진화작업이 중요한 만큼 산림과 인접한 마을엔 반드시 소화전이나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마을의 소화전과 규모가 다르긴 하나 2019년 고성 대형산불 이후 산림 인접 마을에 본격적으로 설치하기 시작한 '비상소화장치'도 지난 3월 삼척·동해·강릉 산불 당시 불길을 잡는데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소화장치함과 두루말이 호스(호스릴), 관창, 옥외 소화전 등으로 구성된 '비상소화장치' 1개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1000만원 가량이다. 2019년 행정안전부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산불 피해 위험 지수가 높아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강원 동해안지역의 마을은 2880개에 달한다.

강원도소방본부는 2019년 자체 예산으로 강릉, 동해, 삼척, 속초, 고성, 양양 등 6개 시군의 34개 마을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했다. 또 2020년과 2021년 등 최근 2년 동안 70억원(국비 50%지원)을 들여 산림과 인접한 마을에 비상소화장치 820개를 추가로 설치했다. 나머지 2000여개 마을에 대해서는 오는 2025년까지 전체 사업비 218억원 가운데 국비 50%를 지원받아 연차적으로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앞으로 동해안지역 뿐 아니라 양구 등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영서지역에도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10일 오후 3시40분쯤 강원 양구군 양구읍 송청리의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바람을 타고 국토정중앙면 방면으로 이틀째 번지고 있다. 이번 산불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축구장 크기(0.714ha)의 약 1063배인 산림 759ha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불대응] 양구산불 관련 언론보도(소화전 관련)

코앞까지 번진 시뻘건 불길...소화전 5개가 양구 전원마을 살렸다



강원 양구 산불 이틀째인 11일 오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청우리 전원마을에서 한 주민이 소화전에 연결된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고 있다. 양구=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강원 양구 산불이 전원주택 단지까지 접근했지만 주민들이 소화전을 활용하며 신속하게 대처하며 대형 피해를 막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오후 3시 40분경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송청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초속 10m 가량의 바람을 타고 인접한 국토정중앙면까지 확산됐다. 비봉산 자락 아래에 위치한 청우리 전원마을 주민들도 산불 소식을 듣고 불길을 막기 위해 나섰다. 이 마을에는 31세대 9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오후 4시경 주민들을 통해 산불 소식을 접한 임태구 청우리 이장(74)은 산불이 마을까지 확산될 것에 대비해 노약자와 여성들을 긴급히 대피시키고 주민들과 함께 방어망 구축에 나섰다. 임 이장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불줄기가 금방이라도 마을로 들이닥칠 것 같은 상황이었다”며 “누가 뭐라 할 새 없이 마을 주민 15명 정도가 방어망 구축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쉬는 날임에도 산불 소식을 듣고 달려온 양구소방서 소속 확인용 소방장(40)의 역할이 컸다. 황 소방장은 이 마을에 사는 친구가 걱정돼 찾아왔다가 주민들과 함께 불길 확산을 막기 위해 나섰다.

황 소방장은 마을 방송을 통해 문을 꼭 닫을 것과 가스를 차단하고 쓰레기 등 탈 거리를 밖에 두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어 소화전 연결이 서투른 주민들과 함께 소화전에 소방호스를 연결했다. 소방호스 물을 조절하는 관창과 호스가 부족한 걸 파악하고 양구소방서에 달려가 장비를 구해오기도 했다. 다른 대원들은 모두 산불 현장에 투입된 상황이었다.

황 소방장과 주민들은 소화전 5개에 연결한 소방호스로 산과 가까운 집에 집중적으로 물을 뿌렸다. 산불이 계속 번지고 있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쉬지 않고 교대로 소방호스를 잡았다. 오후 9시경 마을 바로 코앞까지 산불이 번지자 주민들은 소방호스 5개를 동시에 풀가동했다. 마을 바로 앞산의 나무들이 대부분이 탈 정도로 산불이 가까이 왔지만 마을 주택은 어떤 피해도 없었다. 오후 내내 뿌려둔 물이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황 소방장은 오후 9시 산불 3단계가 발령되면서 마을을 떠나 복귀했지만 주민들의 사투는 이어졌다. 11일 오전 1시경까지 계속 물을 뿌렸고, 산불이 지나간 후에도 감시를 위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소방안전관리사 2급으로 진화에 참여했던 주민 황우남 씨(67)는 “소화전과 주민들의 신속한 대처가 없었다면 정말 아찔한 상황이 전개됐을 것”이라며 “5년 전 산불을 겪은 터라 주민들이 산불 대응 요령을 잘 숙지하고 있어 비교적 잘 대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황 소방장은 “내가 아닌 다른 소방관이더라도 유사한 상황이라면 저처럼 행동했을 것”이라며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마을이 피해를 입지 않아 정말 다행”이라고 밝혔다.



11일 강원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산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산불 2일째인 이날 짙은 연무로 열기 두입이 지연되면서 소방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양구=이인모 기자 imiee@donga.com